

“원칙 세우고 실천하면 소득은 저절로 따라와...”

오산사슴농장, 사슴 10마리로 연간 6천만원 소득

한국의 사슴 산업을 놓고 소위 ‘잘나 가던 시절’과 ‘그렇지 못한 시절’로 딱 잘라 구분지으려면 대체로 1997년 IMF 전후를 꼽는다. 97년 12월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국내 사슴가격과 녹용가격은 별반 오름세없이 하락세만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경기도 오산에서 사슴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종관(69세, 오산사슴집 대표)씨는 하필 97년 사슴값이 하락하기 직전에 사슴을 구입, 농장을 시작했다. 당시 엘크 숫사슴 한 마리를 최하 900만원에서 보통 1,200만원을 주고 10마리를 구입했고 이후 사슴값은 지속 하락했다. ‘꽤나 억울하겠다’ 싶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최종관씨 자택 뒤뜰에서 사육되고 있는 엘크 10마리는 매년 6천만원의 수익을 올려주는 든든한 살림 밑천이기 때문이다.

엘크 10마리에서 6천만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성적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최종관씨는 2003년에는 6천5백만원의 매출을 올려, 사료비, 한약재 등 각종 지출을 제외한 순수익만 정확히 5천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총 5천9백여만원의 매출에 순수익 4천8백10만원을 기록하는 저력을 보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북분양도 아니요, 사슴매매도 아닌 오로지 엘크 10마리에서 생산되는 110kg의 녹용만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종관씨를 통해 그 특별한 비결을 들어봤다.

품질에 주력하라

최종관씨는 사슴농장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그 중 하나는 바

로 품질이 좋은 녹용을 생산하겠다는 다짐이었다. 때문에 최종관씨는 나각후 80일 절각을 기본 철칙으로 삼고 있다. 그의 농장 관리노트에는 올해 나각일자부터 절각 예정일이 촘촘히 적혀 있다. 적게는 나각후 78일, 최고 오래 키우는 것이 83일로 기재되어 있다. 주말에 절각을 실시하기 때문에 다소 날짜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모든 사슴을 80일에 맞추기 위한 흔적이 보인다.

“몇일 더 키워봤자 하대만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예정 날짜가 되면 가차없이 절각을 실시합니다.”

최종관씨의 수익은 정확히 녹용이 아니라 녹중탕에서 전액 창출되고 있다. 어찌피 소비자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하는 녹용이 아니라 녹용이 모두 녹아 없어진 녹중탕을 구매하는데도 최종관씨의 절각일자 원칙은 변함이 없다. 소비자는 녹용의 품질을 ‘눈’이 아닌 ‘몸’으로 보기 때문이다.

“몸으로 효과를 느끼지 못해 소비자 1명을 잃는다면 실제로는 그 소비자가 불러올 수 있는 잠재 소비자 10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1명이 중탕 복용 후 달라진 점을 체험했다면 그 사람이 재창조하는 소비자는 10명 이상입니다.”

현재 최종관씨 농장 고정 고객은 총 200명 수준. 모두 입소문을 타고 불어난 숫자다. 이러한 입소문이 나기까지는 최종관씨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숨어 있다.

우선 그는 녹중탕에 녹용을 꼭 10냥씩 넣는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상태가 좋기 때문에 5냥을 넣고는 효과를 몸으로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란. 그렇다고

녹용을 많이만 넣는다고 능사도 아니다. 녹용을 12냥도 넣어봤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섭취 후 뱃속에서 부글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 이후 최종관씨는 녹용 10냥을 고수하고 있다. 들어가는 한약재는 일반 농가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며 다른 점은 뒷뜰에서 키우는 오가피를 넉넉히 넣는다는 점이다. 다만 중탕을 다리는 과정 동안 온도도와 시간, 공기 조정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마음 속 깊이 ‘이 중탕이 꼭 당신에게 효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라는 주문을 불러 넣는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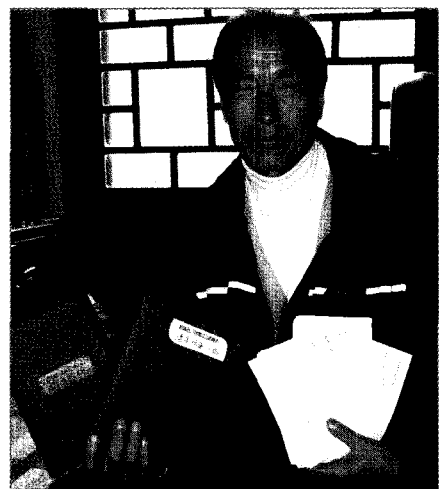
어렵다는 말은 꺼내지마라

최종관씨가 적은 사슴 마릿수로 높은 소득을 올린다는 사실이 인근 주변 농가에 전해지면서 그 비법을 전수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속속 나타났다. 나름대로의 소비자 관리 노하우를 알려주면서도 최종관씨는 꼭 빼먹지 않고 해주는 말이 있다. 바로 소비자에게 ‘요즘 사슴농사가 어렵다’라는 말은 꺼내지도 말라는 얘기다.

‘농사가 어렵다니 이 집 중탕을 팔아줘야지’라고 소비자가 생각할 것이라면 그건 큰 착각이라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요즘 시대는 ‘인정’에 이끌려 물건을 구매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다. 오히려 소비자들은 ‘농사가 어렵다니 중탕에 약재나 제대로 넣었을까, 혹은 사슴을 제대로 먹여 키우기나 했을까’라는 의구심만 조래할 뿐이란.

“농장주의 넉넉한 인심, 여유로운 모습은 제품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며 구매 의욕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또 바쁜 세상에 지친 도시인들이 시골까지 내려와서 같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최종관씨 농장은 집터와 뜰, 사슴장을 포함해 총 1천평을 넘지 않지만 구석구



▲관리노트를 들여보이는 최종관사장

석 청결하면서도 아름답게 꾸며냈다. 고풍스런 기와집 앞 마당은 정원수로 장식하고 기와집 옆 공터는 잔디와 과실수로 장식했다. 농장 옆 텃밭에는 오가피 30주와 각종 채소가 자라고 있다.

“농장에 심어놓은 채소나 매실나무, 앵두 나무 등은 고객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농장을 들른 고객은 원하는만큼 직접 따가지고 갑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 기록하라

최종관씨가 농장을 운영하는 원칙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업에 대한 ‘기록’이다. 그에게는 사슴농장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기재하는 노트가 연도별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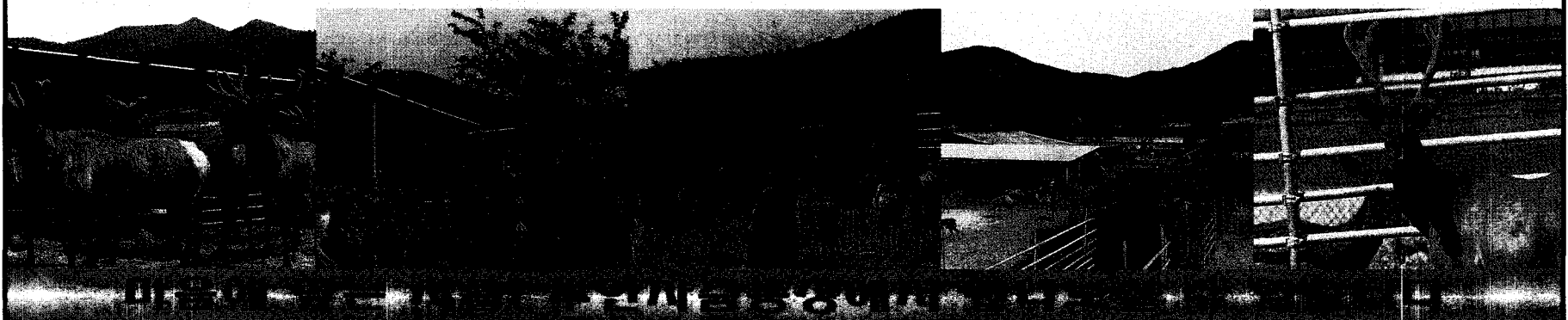
그의 노트에는 사슴에게 무엇을 먹고 있는지부터 시작해 마취 사용량, 절각일자, 생산량 등 업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날차별로 빼곡히 적혀 있다. 특히 한번이라도 거래한 고객에 대한 정보는 그가 가장 아끼는 부분. 이름, 연락처는 기본이요, 무엇을 언제 주문해 갔는지, 특히 사항은 무엇인지 등이 꼼꼼하게 기재되어 있다.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농장주가 해결해야 하는 양록

사슴 분양이 부안사슴농장에서 해결하세요!

부안사슴농장

- 총 230여두의 사슴 보유
- 엘크, 꽃사슴, 레드디어 취급
- 사슴 무제한 구입 및 판매
- 우수사슴 다량 보유
- 우수사슴 구입 및 판매
- 사슴 매매 알선



부안사슴농장

대표 : 허영수

주소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삼산부락 20-3

농장 : (063) 584-0890

팩스 : (063) 584-0857

건강원 : (063) 583-7876

핸드폰 : 011-651-0856

계좌번호 : 농협 539-12-088712

(▶ 6면에 이어)
 업은 소비자 관리가 그 어느 산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이라도 거래를 한 고객들은 잊어먹지 않기 위해 노트에 세세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최종관씨는 노트에 기재된 고객들에게 매년 4월 중순경 우편물 발송을 통해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절각 예정일을 알려주며 고객의 발길을 농장으로 인도하고 있다.
 “농장을 시작하면서부터 기록해 둔 관리노트가 재건 가장 큰 재산입니다. 꼼꼼히 매일 기재하다보면 그 안에서 사슴관리 방법도, 고객 관리 방법도, 농장

운영 방식도 스스로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최종관씨는 취재 내내 ‘별로 특별한 것도 없는데’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의 말대로 농장 운영 방법은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종관씨의 특별한 점은 바로 ‘실천’이라는 부분이다. ‘계획’을 세우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란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귀찮아서, 어려워서, 바빠서...’ 등의 이유로 우리는 쉽게 계획을 포기하지만 최종관씨의 사례는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결실이 무엇인지를 강변해 준다.

랜드산의 경우 건녹용 kg당 129달러로 생용 환산시 양당 1,470원, 러시아산 150달러(양당 1,709원), 중국산 144달러(양당 1,640원), 홍콩산 184달러(양당 2,096원) 등이다. 이를 수입녹용 전체

평균 가격으로 환산하면 양당 1,572원에 불과하다.
 생녹용의 경우에는 뉴질랜드산 양당 1,195원, 호주산 1,094원으로 건녹용 보다 더 낮은 시세이다.

2004년 녹용수입 검역실적

국가명	녹 용			생 녹 용	
	중량(kg)	외화액(\$)	부적합(kg)	중량(kg)	외화액(\$)
뉴질랜드	64,502	8,319,333		98,260	3,129,846
호주	0	0		10,264	299,214
러시아	33,690	5,064,654	3		
아르헨티나	5,600	50,400			
중국	15,836	2,282,937			
카자흐스탄	495	79,050			
홍콩	16,705	3,076,170			
계	120,123	18,872,544	3	108,524	3,429,060

자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연도별·산지별 녹용수입 동향

(단위 : kg)

구분	연도	총계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홍콩	기타
건	98	67,238	47,678	0	1,839	1,604	11,045	5,072	0	0	0	0	158
	99	112,223	64,043	607	9,835	4,232	22,750	10,756	0	0	0	0	57
	00	64,040	21,930	0	7,322	3,398	26,078	5,312	0	0	0	0	0
	01	68,819	44,346	0	0	0	18,914	5,409	0	0	150	0	2,050
생	02	110,317	50,030	597	0	0	22,158	16,112	0	0	1,725	19,695	0
	03	90,823	42,238	0	0	0	8,663	18,161	7,000	0	450	14,311	0
	04	136,828	64,502	0	0	0	33,690	15,836	0	5,600	495	16,705	0
	98	22,560	17,911	0	4,649	0	0	0	0	0	0	0	0
생	99	80,457	35,228	10,543	26,379	8,307	0	0	0	0	0	0	0
	00	97,106	29,310	10,704	43,278	13,814	0	0	0	0	0	0	0
	01	90,734	76,822	13,302	0	0	610	0	0	0	0	0	0
	02	93,275	78,367	14,908	0	0	0	0	0	0	0	0	0
생	03	85,732	61,982	23,750	0	0	0	0	0	0	0	0	0
	04	108,524	98,260	10,264	0	0	0	0	0	0	0	0	0

*98년~02년까지는 식약청 자료, 03~04년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자료로 집계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지난해 녹용수입 급증, 홍콩 중국 앞질러

0 녹용
 2004년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녹용은 건녹용 12만1백23kg(1천8백87만불), 생녹용 10만8천5백24kg(3백42만불)이다. 이를 생녹용으로 환산하면 56만56kg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녹용의 약 3배에 달한다.
 그러나 밀수입 및 해외여행객 휴대녹용 등을 합하면 실제 녹용 수입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별 녹용수입량 분포를 보면 건녹용의 경우 녹용대국인 뉴질랜드가 6만4천5백kg으로 가장 많고, 러시아 3만3천7백kg, 홍콩 1만6천7백kg, 중국 1만5천8백kg 등이다. 특히 녹용생산이 전혀 없는 홍콩으로부터의 수입이 2002년부터 시작돼 지난해 중국보다 많은 양을 기록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홍콩은 2002년 1만9천7백kg, 2003년 1

만4천3백kg등을 한국으로 수출, 각각 전체 수입량의 17.8%, 15.8를 차지했고, 지난해에도 12.2%를 기록했다.
 이는 북미(미국, 캐나다)지역의 사슴 만성소모성질병(CWD) 발생으로 지난 2001년부터 녹용 수입 금지조치를 취한 이후, 홍콩을 경유해 이들 국가 녹용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생녹용의 경우 뉴질랜드, 호주 등으로부터 주로 수입되고 있는데, 98년 2만2천kg에 불과하던 수입량이 99년 8만kg으로 4배나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무려 10만8천kg이 수입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수 년 전부터 만연되기 시작한 수입 생녹용 용도 외 불법유통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수입녹용 가격을 살펴보면 뉴질

더 이상의 질병은 없다!

유구동물병원

질병 주정차 금지

사슴전문치료병원

■ 사슴인공수정 전문병원 ■

- 부제병 치료
- 난산 처치
- 각종 약물
- 24시간 진료
- 정액채취 및 제조
- 각종 수술
- 질병 상담
- 전국 왕진



유구동물병원
 원장 이 동 열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1구 275-10
 전 화 : (041)841-5659
 H·P : 011-434-2559
 농협 : 457040-52-147475 예금주 : 이동열

←공주 유구읍 사무소 예안→



유구동물병원